한마음선원 통영지원 해수관음상 봉안

8월 20일 제막법회…1천명 참석

높이 4.5m, 폭 1.3m 거대한 관음상
2년여 간 불사 진행, 정진 발원 계기
혜수 스님 "해수관음 일체 이롭게해"

통영=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한마음선원 통영지원은 8월 20일 해수관음상 제막법회를 거행했다. 사진은 한마음선원 통영지원에 모인 사부대중들이 해수관음상을 제막하고 있는 모습.

높이 4.5m, 넓이 1.8m, 폭 1.3m 규모의 거대한 해수관음상이 경남 통영 앞바다를 마주한 발암산 중턱의 한마음선원 통영지원에 위용을 드러냈다.

〈화엄경〉에 따르면 중생이 온갖 고뇌에 시달릴 때 한마음으로 관세음보살을 명호하면 그 소리를 듣고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 준다고 한다. 그래서일까. 전국사찰의 해수관음 성지에는 "관세음보살"을 끊임없이 염호하는 기도객들로 넘쳐난다. 해수관음상이 바닷가에 많이 세워진 까닭은 예로부터 관음보살이 인도 남동쪽 해안에 있는 '포탈라카' 산 굴속에 산다고 믿어져 왔기 때문이라 전해진다. 그래서 불교가 인도서 티베트를 거쳐 중국 한국 일본으로 퍼져 나가면서, 사찰들은 바닷가 산에 수많은 관음신앙 성지를 만들었다.

한마음선원 통영지원(지원장 혜연)은 8월 20일 해수관음상 제막법회를 거행했다.

이날 법회는 (재)한마음선원 이사장 혜수 스님을 비롯해 안양본원 주지 혜솔 스님, 광명선원 주지 청백 스님과 통영시불교사암연합회 사무국장 도법 스님 등 사부대중 1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봉행됐다.

이날 봉안법회에서 이사장 혜수 스님은 "통영이 바다와 살아가는 도시란걸 알고 있었지만, 오늘 해수관음을 모시고 나니 그 사실을 더욱 절감할 수 있었다. 바다의 땅 통영을 살피는 혜수관음의 해량이 일체생명들을 이롭게 하는데 큰 힘이 될 것"이라며 "그래서 바다와 공체로 공생하는 통영, 공식하고 공용하고 공심으로 살아감으로서 해수관음의 빛으로 여러 중생들이 고통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 바로 이 소중하고 감격스런 불사를 한 이유가 아닌가 생각된다"고 환희심을 피력했다.

이어 혜수 스님은 "우리 선원은 도량에 불사를 하면 신도님들께서 마음 불사도 함께 이루게 된다는 생각이 든다. 그래서 선원에서 이루어지는 불사는 각 도량서 이루어지지만, 대행 큰스님께서 전체를 품어 펼쳐 주시고 각 도량이 중심되어 선원 모든 사부대중이 한마음으로 이루어 가게 된다"고 덧붙였다.

통영지원장 혜연 스님은 "2012년 저의 큰 의지처셨던 대행 큰스님이 입적하시면서, 큰스님도 안계신데 앞으로 누구를 믿고 이 불사를 해낼 수 있을까 너무 막막했다. 하지만 큰스님이 안계시더라도 우리를 항상 이끌어주시고 보살펴 주신다는 마음으로 다시 힘을 내서 여기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다"며 "그래서 큰 스님의 가르침과 원력이 아니었다면 통영지원은 존재하지 않았을거라 생각한다. 대행 큰스님께서 가르쳐주신 '주인공관법' 인 '오직 주인공만이 할 수 있다' 는 그 믿음 하나가 이렇게 큰 불사를 이루어 내게 했다"고 눈시울을 붉혔다.

이명선 한마음선원 통영지원 종무실장은 신도대표 발원문 낭독을 통해 "우리 도량을 굽어 살피며 미소를 띠고 계신 해수관음보살님 앞에서 통영지원 신도님들의 마음을 모아 물러서지 않는 믿음으로 정진해 나갈 것을 발원한다"며 "해수관음상 봉안을 통해 모든 힘들고 지친 마음들이 밝은 마음으로 이어지고 이 도량에서 한마음으로 함께 정진하기를 서원한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는 감사패 증정식도 진행됐다. 이번 해수관음상 조성에 공로가 큰 김한열 보광석재 대표이사에게 한마음선원 이사장 혜수 스님이 감사패를 전달했다. 이날 법회에서는 또한 주요 내빈들의 축사도 이어졌다. 통영시불교사암연합회 사무국장이자 연화사 주지인 도법 스님은 "오늘 통영지원 해수관음상 낙성으로 보리암, 보문사, 낙산사에 이어 이곳 통영지원이 4대 해수관음 성지로 들어가는게 아닌가 생각할 정도로 여법하게 잘 모셨다"며 "이렇게 이 도량에 해수관음상을 모셔 통영지역 불교발전에 밑거름이 되게 해주셔서 다시한번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천영기 통영시장은 김호석 통영시 문화관광체육경제국장이 대독한 축사를 통해 "오늘 이 엄숙한 법회 속에서 세워지는 해수관음상 봉안을 통해 관세음보살님의 가피가 통영을 극락정토로 이끌어 주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며 "그리하여 이곳 통영지원이 중생들에게 맑고 깨끗한 지혜의 샘이 되어 명실상부한 한국최고의 기도도량으로 거듭나길 기원 드린다"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이날 봉안법회는 해수관음상 제막과 헌화, 경과보고, 감사패 전달, 대행선사 생전 영상법문 시청, 통영 · 부산지원 선법합창단의 음성공양 순으로 진행됐다.

한편 2020년 5월부터 약 2년3개월 동안 조성된 통영지원 해수관음상은 연화좌대 높이가 1.8m, 너비는 3m로 하대석은 팔각과 중대석은 복련을 조각하고 상대석에는 양련을 새겼다. 해수관음상을 둘러싼 병풍석은 길이 19.3m, 높이 2.9m 규모로, 중대석에는 '나를 완성시키는 길' 이라는 대행선사의 법어 10폭을 새겼다. 특히 이번 해수관음상 봉안으로 통영지원은 지난 2004년 대행선사의 불사 발원 이후 2018년 대웅전 낙성, 2021년 도량탑 제막 등에 이어 18년 대작불사를 마무리 짓게 되었다.

이날 봉안된 한마음선원 통영지원의 해수관음은 중생의 아픈 마음을 인자한 미소로 어루만지며, 잠시도 한눈 팔지 않고 꼿꼿하게 사바세계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진주 경상국립대 불교학생회 창립법회

8월 22일 15명 학생 주축돼
대불련 등 불자참석해 축원



8월 22일 창립법회에 참석한 불자들이 불교중흥을 서원하고 있다.

경상국립대학 불교학생회 창립법회가 8월 22일 진주 미륵암에서 봉행됐다. 지역불교계 및 경상대교수불자회, 대불련 동문회의 후원 속에 15명의 학생이 부처님께 귀의했다.

창립법회는 개회선언, 헌향(배설화회장), 헌화(김옥란 동문회부회장), 삼귀의례, 한글반야심경, 발원문(유솜이), 삼대강령제창(오화선 동문회부산지회장), 경과보고 및 인사(김용진 불교학생회지도교수), 연혁소개, 내빈소개, 스님축사, 중앙회장 인사(조석주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회장), 동문회장 인사 및 축사(문성국 동문지부장), 회장인사(배설화 경상국립대학교 불교학생회회장), 격려사(지도법사 담산 스님), 꽃다발 증정, 장학금전달, 한국대학생 불교연합회 뺏지 수여, 회원소개 및 동문회 소개, 공지사항 및 기념품 증정, 사홍서원, 대불련가, 폐회선언 순으로 진행됐다.

법회에는 지도법사 담산 스님, 사천 달마사 해일 스님, 남해 관음선원 일진 스님, 진주 기원정사 성각 스님, 창원 안국사 성오 스님, 고성 옥천사 청련암 원명 스님, 진주 약사정사 진여 스님, 순천대 불교학생회 이종수 지도 교수, 경상국립대 교수불자 김용진 교수(지도교수) 등 회원 및 배설화 불교학생회 동아리회장, 유솜이 부회장, 강민희 총무 등 15명의 창립학생이 참석했다.

지도법사 담산 스님은 격려사에서 "1967년 진주경상대 불교학생회가 창립되었으나 그동안 중단되어 아쉬웠다. 오늘 배설화 회장과 15명의 경상국립대 학생들의 새로운 인연들을 만나니 기쁘다"며 "부처님 도량에서 한마음 한뜻으로 지혜롭게 생활하자"고 서원했다.

배설화 경상국립대 불교동아리 회장은 "오랜 기간 공백이 있었던 경상국립대학교의 불교학생회 동아리가 오늘을 계기로 다시 희망찬 발걸음을 내딛고자 한다"며 "대불련 동문 선배님들의 정신을 이어 받아 더욱 발전 시키겠다"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김용진 경상국립대 불교학생회 지도교수(교수불자회장)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마음 속에 담아 진리와 지혜를 배우고 익히며 사회에서 중심적인 위치에서 일하길 바란다"며 "화합과 포교로 재창립하는 불교학생회가 희망과 새로운 비전으로 젊은 청년들의 새로운 모델과 방향을 모색하는 구심점이 되자"고 서원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의왕 청계사 2022년 문화재활용사업 성료

이야기인쇄소 '경판학교' 8월 20일 수료식 거행



청계사 문화재활용사업 참가자들이 직접 만든 문패를 들어보이고 있다.

의왕 청계사(주지 성행)는 8월 20일 전통문화재 활용사업 일환으로 의왕 청계사 이야기 인쇄소 수료식을 거행했다.

이날 성행 스님은 프로그램을 이수한 총 12명에게 "목판 인쇄와 목판화 전통은 소중한 인쇄 문화로 천년고찰 청계사서 인쇄 전통기술을 배운 것은 자랑스런 일"이라고 전했다.

경기도 유형문화재인 청계사를 활용한 이야기 목판인쇄소 프로그램은 문화재청, 의왕시, 청계사, 컬처앤로드 문화유산활용연구소가 주관하여 청계사 및 의왕시의 다양한 이야기를 나무안내판으로 제작 설치하는 프로그램이다.

또한 천자문을 비롯하여 〈묘법연화경〉 등 경판을 직접 만들어 보는 과정도 진행된다. 이를 위해 국가무형문화재 106호 정찬민 각자장이 지도하고 있으며 의왕지역 주민에게는 무료로 제공된다.

노덕현 기자

전주교도소 불교반, 수용자에 선물 전달



전주 교도소 수용자들의 건강한 여름나기를 위한 아이스크림이 전달됐다. 전주 교도소 불교반(위원장 현진, 천지사 주지)는 8월 19일 전주교도소 수용자들의 건강한 여름나기를 위해 1,300명분의 아이스크림을 전달했다.

전주교도소 교정협의회 명예회장 진성 스님은 "더위가 더욱 기승을 부려 심신이 지쳐 가는 즈음에 수용자들에게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자 추진했다"고 말했다.

전주교도소 불교반 위원장 현진 스님은 "지속적으로 후원해 주시는 사회적 인사들의 자발적인 지원에 교정봉사에 힘을 얻고 있다"며 "비록 수용자들이 죄의 댓가를 치르고 있지만 열악한 환경에서 자아반성을 이루는데 나눔의 봉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이날 아이스크림 나눔은 마이산 탑사 신도회 윤복길 회장, 전북 나누우리 봉사단 이재현 봉사단장, 교정봉사단 박성균 단장, 탑밴드 봉사단 천순희 단장, 사랑으로 행복을 붓다 복지관 김경은 단장, 소녀원 어머니회 지원단 정해자 단장, 소녀원 교정협의회 명예회장 황동현 대표, 소년원 어머니회 김도은 위원장, 김동우, 변상경, 박교상, 오다애 심 봉사자들의 후원과 협찬으로 이루어졌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빛고을나눔나무, 차상위 어린이 돕기



또래 친구보다 체구가 작은 아이들을 위한 영양제가 전달됐다. 광주불교연합회 부설 (사)빛고을나눔나무(상임이사 중현)는 8월 19일 광주 서구청(청장 김이강)을 방문해 관내 차상위계층 저성장 어린이들에게 홍삼 영양제 100세트(300만원 상당)를 전달했다.

전달식에는 월인 스님(태고종광주전남종무원장), 중현 스님, 소운 스님(관음사 주지), 해청 스님(원효사 주지)을 비롯해 김이강 서구청장, 오대영 빛고을나눔나무 운영위원 등이 참여했다.

중현 스님은 소감을 통해 "가장 성장이 왕성한 초등학교 어린이들에게 영양은 중요하다. 특히 차상위계층중 성장이 더딘 아이들은 체구가 작아 나중에 학교폭력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아이들이 갖는 심리적인 피해도 크다"라고 강조했다.

김이경 청장도 "관내에 힘든 아이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전달한 홍삼 영양제는 고른 영양 섭취가 어려운 차상위계층 가정의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전달됐다.

한편 빛고을나눔나무는 지난해부터 매년 2개 구청을 통해 1,200만원 상당의 어린이 영양제를 전달하고 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태고총림 선암사, 순천대와 업무협약



태고총림 선암사(주지 시각)와 순천대(총장 고영진)가 8월 22일 선암사에서 '지역사회, 임업기술 발전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상호지원 및 협력체제 구축' 을 위한 업무협약서를 체결했다.

선암사 시각 스님, 선암사 총무 원일 스님, 문사 스님을 비롯해 순천대 고영진 총장, 기획처장 정용화, 생명대학장 신동원, 박물관장 이종수, 부속학술림장 조계중 교수 등이 참여해 체결했다.

협약서에는 △ 공동 관심분야 연구를 위한 인적, 학술교류 △ 수목병충해 진단 및 방제 기술 지원 △ 기후변화에 따른 수목의 변화 및 생태조사 △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현장실습 지원 △ 그 밖에 양 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에 대한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시각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선암사는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중심사찰로, 인종과 국가, 종교나 이념을 넘어 인류가 지키고 보존해야 할 문화유산"이라고 말하며 "선암사의 자랑스러운 역사와 문화, 도량과 자연환경의 원형을 보존하여 만대에 계승할 의무와 사명이 있다"고 의미를 설명했다.

이에 고영진 총장은 "순천의 대표적 천년고찰인 선암사의 발전이 곧 순천의 발전이며, 순천대학교의 발전에 토대가 된다"라고 답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